

이야기지도안

교육목표

제목 활쏘기와 말타기에 뛰어난 주몽

나이 어린이 (6~9세)

주제 • **목표** : 고구려를 세운 주몽의 인내와 용기를 배운다.
• **주제** : 용기, 인내

핵심어 용기, 인내, 주몽, 금와왕, 유화, 고구려, 부여, 해모수, 하백

한국문화 • **목표** : 주몽의 뛰어난 활쏘기와 말타기 실력에 관심을 가진다.
• **요소** : 활쏘기, 말타기

한국어 • **목표** : 한국의 옛 이름을 알아본다.
• **단어** : 고조선, 부여, 신라, 고구려, 백제, 가야, 발해, 고려, 조선
• **표현** : 금와왕이 부여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주몽은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고 지었어요.





인사 나누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000,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예요.



제목 알리기

오늘 할머니가 들려줄 이야기는, 제목 나와라 똑딱! ‘활쏘기와 말타기에 뛰어난 주몽’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주몽’이에요. ‘주몽’은 활을 잘 쏘는 사람을 뜻해요. 얼마나 활을 잘 쏘았는지 궁금하지요? 그런데 주몽은 신기하게도 알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은 엄마의 뱃속에서 세상으로 나왔지요. 알에서 태어난 주몽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들어 볼까요?



이야기 시작 노래 부르기

‘활쏘기와 말타기에 뛰어난 주몽’ 이야기 속으로 출발!

♪ 하나 둘 셋 넷! 이야기 시작! 우리 모두 신나게 잘 들어 보아요.

♪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준비 됐나요? 하나 둘 셋 넷! 출발합니다. 빵빵! ♪



이야기 들려주기

옛날 금와왕이 부여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금와왕이 사냥을 하고 궁궐로 돌아오던 중이었어요. 아름다운 여자가 강가에 앉아 울고 있었지요.

“무슨 일 때문에 그리 슬피 우시오?”

금와왕이 여자에게 물었어요.

“저는 원래 물의 신 하백의 딸 유화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허락도 없이 하느님의 아들 해모수 님과 혼인하였는데 해모수 님이 말도 없이 떠나 버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마저 저를 내쫓아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딱한 마음이 든 금와왕은 유화를 궁궐로 데려왔어요.

그날 이후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루 종일 햇빛이 유화를 따라 다니며 비추는 거예요. 유화가 방 이쪽으로 자리를 옮기면 햇빛도 따라와 유화를 비췄어요. 방저쪽으로 옮겨가도 마찬가지로였어요. 그렇게 햇빛을 받던 유화는 점점 배가 불러 왔어요. 그리고 얼마 후 커다란 알을 낳았지요.

“사람이 알을 낳는 것은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 알을 빨리 없애야 합니다.”



이야기 들려주기

신하들이 금와왕에게 말했어요.

“그럼 그 알을 돼지우리에 버려라. 돼지들이 밟아 죽이겠지.”

신하들이 알을 돼지우리에 버리자, 돼지들은 밟기는커녕 슬금슬금 피했어요.

“안 되겠다. 들판에 내다 버려라. 산짐승이 먹지 않겠느냐.”

그러자 산짐승들은 밤낮으로 알을 품고 보살폈어요.

“하는 수 없구나. 그 알을 유화에게 돌려줘라.”

알을 돌려받은 유화는 정성껏 알을 돌보았어요.

며칠 후였어요. 알에 금이 짹짹 가더니 건강한 사내아이가 알을 깨고 나왔어요.

“아, 이 이야기는 해모수 님의 귀한 아들이야.”

유화는 기쁜 마음으로 아이를 키웠어요.



이야기 들려주기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친구들보다 힘도 세고 몸집도 컸어요. 특히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화살을 잘 쏘았지요. 사람들은 그 아이를 ‘주몽’이라고 불렀어요. ‘주몽’은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한편 금와왕에게는 일곱 왕자가 있었어요. 일곱 왕자는 자기들보다 재주가 뛰어난 주몽을 싫어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일곱 왕자는 주몽과 함께 사냥을 나갔어요.

“주몽, 너는 활을 잘 쏘니 우리보다 적은 수의 화살로 사냥을 해라.”

그 말에 주몽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요. 사냥이 시작되자, 주몽은 빠르게 말을 타고 다니면서 화살을 쏘아 사슴을 잡았어요. 일곱 왕자는 주몽이 적은 수의 화살로 자기들보다 훨씬 많은 사슴을 잡은 것을 보았어요. 주몽의 뛰어난 실력을 질투한 일곱 왕자는 왕에게 가서 말했어요.

“아바마마, 저 아이는 이 나라를 빼앗으려 할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더 자라기 전에 없애야 합니다.”



이야기 들려주기

왕자들의 말을 듣고 금와왕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따지고 보면 왕자들의 말이 틀리지 않은 것 같았지요.

“말 돌보는 일을 시키며 좀 더 지켜보자꾸나.”

마음 약한 왕은 차마 주몽을 죽이지 못했어요. 말들을 돌보게 된 주몽은 가장 좋은 말에게만 일부러 먹이를 잘 주지 않았어요.

하루는 말들을 둘러보던 금와왕이 말했어요.

“말들을 열심히 보살폈구나. 저 말은 네가 가져도 좋다.”

왕은 주몽이 일부러 먹이를 주지 않아서 비쩍 마른 말을 가리켰어요. 이렇게 주몽은 부여에서 가장 좋은 말을 가지게 된 것이지요.

“아바마마는 마음이 너무 약하셔.”

“주몽을 계속 저렇게 둘 수는 없어.”

상황을 지켜보던 일곱 왕자는 결국 주몽을 없애기로 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 유화가 주몽을 불러 말했어요.



이야기 들려주기

“아무래도 왕자들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구나. 어서 이 부어를 떠나도록 해라.”

주몽은 눈물을 흘리며 친한 친구 세 명과 말을 타고 부어를 떠났어요.

“주몽이 도망친다. 어서 잡아라.”

일곱 왕자는 병사들을 이끌고 주몽을 쫓아갔어요.

한참을 달리던 주몽 앞에 커다란 강이 나타났어요. 바로 뒤편 일곱 왕자와 병사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고 있었지요.

“나는 해모수의 아들이자 물의 신 하백의 외손자다. 어서 길을 내어라.”

주몽이 강을 향해 소리치자, 놀랍게도 수많은 물고기와 자라가 물 위로 떠올라 다리를 만들었어요. 주몽과 친구들은 그 다리를 밟고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지요.



이야기 들려주기

그렇게 한참을 달리던 주몽과 친구들은 강줄기가 굽이굽이 흐르는 넓은 땅에 도착했어요.

“이곳에 나라를 세우도록 하세.”

주몽은 그곳에 나라를 세우고 이름을 ‘고구려’라고 지었어요. 주몽은 고구려를 크고 힘센 나라로 키워 오랫동안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답니다.



한국문화, 한국어 소개하기

여러분,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잘 들었나요? 주몽이 세운 나라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그래요, 주몽은 고구려를 세운 건국 영웅이에요. 주몽은 부여를 떠나 강줄기가 굽이굽이 흐르는 넓은 땅에 터를 잡았지요. 주몽은 고구려를 크고 강한 나라로 키워 오랫동안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신화적 존재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활을 잘 쏘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나요?

그래요. ‘주몽’이라고 불렀어요. 주몽은 활쏘기와 말타기를 아주 잘했어요. 주몽의 후손인 우리도 활 쏘는 재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한국은 양궁을 잘하는 나라로 널리 알려져 있지요. 고구려 벽화 ‘수렵도’에는 힘차게 말을 타고 씩씩하게 사냥하는 고구려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고구려 벽화가 궁금한 친구들은 ‘도란도란 이야기보따리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아요.



이야기 정리하기

여러분, 할머니와 ‘활쏘기와 말타기에 뛰어난 주몽’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머니 유희의 지극한 사랑과 정성 덕분에 주몽은 알에서 무사히 태어났고, 무럭무럭 자라서 활쏘기와 말타기에 뛰어난 사람이 되었어요. 주몽은 일곱 왕자들의 질투와 괴롭힘을 이겨내고 훗날 고구려를 세워 스스로 왕이 되었답니다.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용감하고 씩씩하게 극복해 내는 어린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마치는 노래 부르기

그럼, 이야기 마치는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할머니랑 인사합시다.
이야기 마치는 노래 시작!

♫ 하나 둘 셋 넷! 잘 들었어요. 우리 모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정말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만나요. 땡땡!♫



인사 나누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다음에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또 만나요. 안녕!